

한국의 창업교육실태와 개선방안

한 정 화 *
이 명 자 **

본 논문은 창업교육의 발전과정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자료고찰을 바탕으로 최근의 국내 창업교육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창업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창업교육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49시간 교육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교과목은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준비와 경영교육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창업교육의 시작동기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동참하거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창업교육의 효과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교육의 수강생 및 창업업종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교육능력의 부족, 교육기간의 단기성 및 교육의 일회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50%가 창업교육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및 사례연구, 모의창업게임, 현장학습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교육담당자들이 세분화·전문화·체계화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기관은 전문교과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창업교육 관련기관들이 강좌 개설 목적 및 수강대상에 따라 교과목을 차별화하고 현재의 제조업중심 창업교육에서 탈피하여 소자본 창업, SOHO창업, 여성창업, 서비스·유통업창업 및 프랜차이즈창업 등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일부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그 당시는 대학이나 정부의 창업교육 및 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1986년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경영컨설팅회사와 산업교육기관 및 은행 등에서는 창업에 대한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기강좌를 개설하여 창업 교육을 실시해왔다. 최근 벤처창업의 성공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또한 구조조정에 의한 명퇴, 실직 등의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잠재적 창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수요에 응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지원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설되면서 창업은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화 되고 있다.

창업교육은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절차 및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급속히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는 국내 창업교육의 역사가 일천하여 이를 위한 전문교육인력이나 교수방법, 교재개발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차원에서 창업성과를 높이는데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창업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와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창업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외 문헌을 통하여 창업교육의 발전과정과 이론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 창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창업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를 위하여 예비창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전문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는지, 어떻게 창업교육 정보를 제공하는지,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7년도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교육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에서 지정한 창업교육기관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강의실과 지원시설을 갖추고 교육내용과 강사진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상당수의 민간 창업컨설팅 업체들이 있지만 그에 대한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으로 이번 연구의 대상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2. 창업교육 및 연구의 발전과정

1) 미국

창업교육은 미국이 가장 앞서 왔으며 최근에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창업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까지는 창업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이 거의 없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군수산업의 붕괴로

인하여 전환기에 놓여 있던 경제상황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학생들을 위해 1945년 처음으로 「창업교과과정」을 도입하였다. 창업프로그램을 시작했던 교수가 별로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신 대기업 이사회에 대한 연구로 관심을 돌렸지만 그 후 창업교과과정은 뿌리를 내리고 인기도 높아졌다. 그러나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 사실은 미국 경제에서의 창업활동에 대한 측정치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그 당시 미국 국제청에 제출된 사업 및 전문 직업에 의한 소득수준과 1인당 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성장은 빨랐다.

1970년에 들어 창업교과과정을 개설하는 경영대학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6개가 되었다. 또 Inc., Venture, In-Business, Entrepreneur 등처럼 창업을 다루는 새로운 잡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기업가(Entrepreneur)가 함축하는 의미도 욕심, 착취, 이기주의 등의 부정적 의미로부터 창조성, 직업창출, 수익성, 혁신, 관대함 등의 긍정적 의미로 바뀌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시작된 벤처캐피탈은 1960년대 후반에는 전문직업 영역으로서 확립되어 잠재적인 사업가들에게 창업을 시도하도록 유인하였다. 전자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재와 소비재를 포함하는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배출됨에 따라 투자자본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마이크로 컴퓨터의 출현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시켜 크게 위축된 '규모의 경제' 상황에서도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자본집약도는 낮으며 마진이 큰 소프트웨어회사들이 증대되는 수요에 맞춰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창업교과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의 수는 1970년의 16개에서 1995년에는 400여 개로 증가하였다. 그 추세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창업교과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수도 증가하였고 동시에 이 분야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창업은 그 자체가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즉 소규모사업이 갖는 '성장 부족·혁신 부족·미성숙'의 이미지를 종식시키는 외에 자체의 고유영역을 확립해야 했다. 그것은 비록 이 분야가 특별한 영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독립된 학문으로서 인식시키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창업은 일반경영의 범주에 속해 있다가 후에 '소규모경영'의 범주로 분류되었지만 둘 중 어떤 것도 이 분야를 독특한 분야로 허용하지는 않았다. 창업 이론이 그 자체의 이론이 아닌 다른 분야의 이론을 원용하는 가운데 Vesper(1987)는 1970년대 후반 그 창업교육을 일컬어 '탈선적 활동 및 학문적 빈약함'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하여 기업가의 사업동기를 이해하는데 심리학 이론을 적용하면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창업관련 문헌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적어도 창업을 전담하는 12개의 전문저널과 약 700개의 논문이 제출된 20여 차례의 연례 학회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 몇몇 창업연구 모음집들이 출현했다. Wortman(1989)은 이 시기를 "창업의 통상적 정의 및 창업범위 결정, 개별적 창업과 기업 창업의 분류, 정교한 연구계획·방법 및 통계기술의 진보, 대규모 표본 및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그리고 탐색적 연구로부터 인과 분석적 연

구로의 전환 등에서 진일보한 시기"라고 요약했다. 아직 이 분야를 진보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개념적 틀은 준비되지 못했다. 포괄적 통합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몇몇 시도가 있었지만 관련 학자 중 누구도 이 분야에 체계적 진보에 유용한 통합이론을 형성하진 못했다 (Sexton, 1988; Low and MacMillan, 1988).

둘째, 창업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단체는 1984년 조직되었고 지금은 이론 연구가와 기업인, 교수, 저자 그리고 종사자들이 이 분야의 최근정보와 개발 및 혁신에 대한 주제를 서로 나누기 위한 전문협회로 되어있다. 또 이 협회는 그 학문분야의 정당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거기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주로 창업에 필요한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몇몇 박사과정 프로그램은 이러한 도전을 수용하였고 박사과정 학생들은 실제로 그에 관한 연구를 했다. 정부조직인 「소기업사업회」 외에 또 다른 창업으로 인식되는 정부기관으로서 「국가독립사업협회」가 있고 학술기관으로는 창업교육강좌를 실시한 Babson, Baylor, Harvard, Wharton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있다.

셋째, 1990년대 성공적 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 및 규범은 창조성 및 혁신성과 역동적 환경 내에서의 기회개발에 기초하며, 기업가적 행동은 혁신성과 향상된 생산성 그리고 시장경제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경쟁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창업기업가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가치의 창조, 실패 또는 성공의 자유 그리고 재산획득의 정당성 등을 보여주었다. 또한 위험감수, 리더십, 성취욕, 기회추구를 위한 활동 등은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인식되었다.

넷째, 전문성에 대한 또 다른 측정은 직업으로서의 지위와 경력 여부이다. 직업경력의 기회로서 창업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가는 중이지만 직업을 결정하는 개개인과 학생들 다수는 여전히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직업을 구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개인들은 가능한 직업의 대안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그 댓가로서 이익을 얻는 기업가정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Scott, 1988).

1980년대 초 Babson, Baylor, Southern California 대학 등에서 이 주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고 특히 1983년 Harvard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창업교육에 관한 토론을 개최했다. Ohio주립대는 1984년에 범제화를 위한 「국가창업교육의제」를 발간했다. 또 같은 해 창업 연구를 위한 Price학회는 대학이 창업교육자를 지원하고 그 분야의 관심을 끌기 위한 「Babson대학 회원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한편 창업센터 및 강좌, 회의, 저널 그리고 프로그램이 확산되었고 학문과 전문적 분야에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관계자들은 창업교육이 MBA프로그램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잠재력에서 이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이 5년 이내에 소규모 사업에서 창업교육으로 변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Kerr, 1988).

창업교육에 관련된 대학의 수에서 볼 때,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 창업교육과 관련된 특수과정이나 특수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 또는 경영대학의 수는 1967년 8개에서

1984년 245개로 늘었고, 그 이후 더욱 증가해서 300개에 이르고 있다. 1991년 미국은 369개교에서 창업강좌를 개설하였다. 창업강좌는 대학과 대학원 중 대학에 더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7.6%가 대학의 창업강좌에 23.7%가 대학원에, 그리고 38.7%가 대학·대학원 모두에 개설되어 있었다(Gartner and Vesper, 1994). 전체적으로 볼 때 창업강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장할 것이며 중소기업 경영이론의 보급 및 창업강좌의 증가는 중소기업의 '혁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Solomon, Fernald and Weaver, 1993).

창업교육은 이미 대학·대학원과 그 밖의 기관들에서 개설되었고 또 계속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려는 대학이나 대학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가적 지식 및 학습·교육에 대한 관점도 함께 끊임없이 변화한다. 향후의 창업교육은 '창업교육은 가능한가'와 '무엇을·누가·어떻게' 가르치며 또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계속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2) 한국

한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학에서 중소기업 경영론 강좌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창업교육이 대학 및 컨설팅회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 28개 대학에서 중소기업 및 창업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강좌의 명칭은 중소기업론, 중소기업 창업론, 중소기업 법제론, 중소기업 경영론, 중소기업 지원 체계론, 중소기업 정책론 등이다. 1990년초에 10여개의 창업교육을 하는 사설학원이 있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박춘엽, 1997). 최근에는 대학, 대학원에서도 창업 강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등에서도 창업 강좌를 개설하는 곳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경제신문사, 대학부설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활발한 창업교육이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창업교육은 도입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창업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박춘엽, 1993, 1997; 어윤배, 1993, 1994; 조병주, 1996; 중소기업진흥공단, 1997). 이들의 연구에서 주장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촉진을 위해서는 유망한 창업자를 의도적으로 양성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대학 및 대학 이외의 기관에 의한 창업교육의 확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창업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무료 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의 창업교육 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박춘엽, 1993). 또한 학계에서는 향후 창업이나 기업가양성에 관한 '한국적 이론'을 정립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창업기업가 교육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술적 특수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해야 한다(어윤배, 1993).

어윤배 외(1994)는 기업가 양성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창업관련 각종 프로그램들이 창업실무를 위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가적 정신의 함양과 창업전략 등과 같은 장기적이고 정신적인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대

학에서 창업을 가르치고자 할 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학수준에서의 창업교육이 충실해질 수 있도록 창업교육의 교과내용 결정모형과 전공과정의 개발방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조병주, 1996).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기는 하지만 연구논문 발표와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창업교육강좌 개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창업교육의 발전에 고무적인 현상이다.

3. 창업교육의 최근 동향

최근 미국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및 대부분의 대학들은 중소기업 경영과 창업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다. 창업이 경영학에서만뿐만 아니라 공학계열의 학과에서도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Vesper, 1982). 1980년대에 중소기업경영과 창업에 관한 관심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 1986년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백악관회의'에서 3천명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뽑은 60개의 권고사항 중 창업교육이 6위를 차지했다. 또한 1993년 6월의 제38차 ICSB(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에서도 창업교육이 주요 의제였다.

미국에서는 미국 대학에서 중소기업경영 및 창업이 새로운 학문분야로 자리하게 된 이유는 첫째 경영학에서의 기존의 교육내용이 실용적이기보다는 도구적이었으며, 둘째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적이었고, 셋째 일반국민, 정부, 대중매체들이 1980년대에 창업교육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현재 개설중인 초등학교 프로그램으로 YESS(Youth Empowerment and Self-Sufficiency)가 있다. 이것은 Mini-Society 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으로 8살에서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주요 대상이며 그 특징은 자기조직적이고 학제적이며 경험에 기초한 창업준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가자들이 창업의 원리와 실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개인적인 경험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사회를 만들며, 그들 자신의 경제를 세우고, 그들 사회의 고유한 통화를 개발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독립적으로 교실내의 모의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 및 사업을 개발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창업을 처음으로 경험한 후 그 배후에 있는 개념들을 탐구하기 위해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 10주 동안 하루 한시간 일주일에 3일간 실행된다.

기업가 발명회(Entrepreneur Invention Society) 프로그램은 YESS/Mini Society 교과과정이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 상급학생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내 학생들과 소년 및 소녀클럽과 같은 학교외부의 기관에서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험에 기초한 학제적 교과과정으로서 창업과정과 창업지식, 기술 및 태도를 촉진하고 통합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어린 발명가들에게 기회를 파악하게 하고 파악

된 기회와 연관된 발명을 착상하고 개발하게 하며, 목표대상시장을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그들 자신의 혁신을 위해 생존 가능한 사업을 창출하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2년 Godfrey에 의해 개발된 「An Income of Her Own」은 다양한 인종집단,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학업성취수준을 가진 13세에서 18세까지의 10대 여자를 대상으로 몇 가지 창업 자각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내, 방과후 소녀클럽, 사회기관 및 하계캠프에서 실시되었다. 그 목적은 젊은 여성에게 창업의 기회와 자립 및 경제적 복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자질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춘기 소녀들에게 창업이 경력으로 가능한 선택이라는 사고를 심어주어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원리와 실천방법을 제공한다. 1992년 개시 이래 약 만 명의 소녀들이 Boston, Los Angeles, San Francisco, San Jose, Washington D.C. 및 Oklahoma의 Cherokee인디안 부족 등의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PACE(Program for Acquiring in Entrepreneurship)는 1976년 국제개발연구소에 의해 독창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교과과정은 1992년 Ohio주립대학의 고용 교육훈련센터에 의해 개정되고 갱신되었다. 이 과정은 세 가지로 교육수준이 구분되어 있다. 수준 1은 창업교육의 한 학기 과정 또는 다른 과정에 포함된 보완적인 창업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 수준 2는 지역 단과대학 학생을 주 대상으로 완전한 전공과정 또는 선택과정으로 제공된다. 수준 3은 벤처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벤처사업을 시작하고 구축하는데 있어서 성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창업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1995년 Kourilsky에 의해 개발된 EntrePrep는 고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학생지원자들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교과과정은 창업을 대안적인 경력으로 제공하며 젊은이들의 사고과정과 개인적인 삶의 목표에 대한 의식적인 성찰을 촉진시킨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가자들에게 기회를 포착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업가적 지식, 기술, 경험 및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며, 성공적으로 이수한 참가자들에게 천 달러의 장학금을 포함하여 대학교육을 후원한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경영 또는 창업교육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수는 1979년도에 263개교에서 1992년도에는 470개교로서 13년 동안에 78.7%의 증가를 보였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이 기간 동안 4년제 대학이 2년제 대학보다 더 큰 증가를 보였다.

이 조사에서는 이들 두 종류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의 구성비도 함께 조사했다. 1979년 조사결과는 2년제 및 4년제 대학들이 창업교육을 중소기업 경영에 비해 10%정도로, 2년제 대학의 경우 179개 강좌중 중소기업 경영을 170개 창업교육 9개 개설했고, 4년제 대학의 경우 155개 강좌중 중소기업 경영을 130개 창업교육을 25개 개설하는 정도였다. 1992년에는 2년제 대학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을 191개 창업교육은 33개 개설했으며, 4년제 대학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을 421개, 창업교육을 198개 개설해 4년제 대학에서 창업교육과목이 45%정도

〈표 1〉 중소기업 경영론 및 창업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미국대학의 수

연도 분류	2년제대학 (성장률%)	4년제대학 (성장률%)	계(성장률%)
1979	146	117	263
1982	131(-1)	131(12)	262(0)
1986	202(54)	212(62)	414(58)
1992	160(-21)	310(46)	470(14)

자료:Solomon, Fernald and Weaver(1993)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Southern Illinois 대학과 Baylor 대학은 학부과정에서 창업교육을 전공으로 다루었다(Solomon and Fernald, 1991). 그러나 2년제 대학에서는 1986년까지는 증가되었으나 1992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후 창업교육을 전공으로 다루는 대학 및 대학원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경영과 창업교육은 학문분야에서 성장해 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창업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의 전공자를 위한 진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미국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데는 대학에서의 학문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정부와 중소기업청의 혁신 연구 및 중소기업 연구에 대한 대학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Solomon, Fernald and Weaver, 1993).

〈표 2〉 미국의 대학에서 개설된 중소기업경영 및 창업교육 과목의 수

연도 분류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중소기업 경영	창업교육	계	중소기업 경영	창업교육	계
1979	170(n=146)*	9(n=146)	179	130(n=117)	25(n=117)	155
1982	190(n=131)	22(n=131)	212	175(n=131)	42(n=131)	217
1986	238(n=202)	40(n=202)	278	281(n=212)	132(n=212)	313
1992	191(n=160)	33(n=160)	224	421(n=310)	198(n=310)	619

* 괄호 속의 숫자는 응답한 대학의 수를 나타냄.
 자료 : Solomon, Fernald and Weaver(1993)

미국의 대학 중 창업관련강좌가 가장 많은 곳은 Wichita 주립대학으로 14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Calgary University, De Paul University, UCLA, Wharton School등도 12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한편 하버드대학은 5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의의 명칭과 내용도 세분화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기업내 창의력(Corporate Creativity), 인문 및 자연과학도를 위한 창업학(Entrepreneurship for Arts and Science Students), 간호사를 위한 창업학(Entrepreneurship for Nurses), 정부 혁신학(Government Entrepreneurship)등이 있다. Wichita주립 대학의 학부과정에는 창업 및 마케팅학과가 있으며, Stirling University, Swineburne University등에는 창업학 석사(Masters Degree in Entrepreneurship)과정이 있다 (박춘엽, 1997).

최근에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중소기업 인큐베이터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제품개발 클래스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를 사업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996년 Pennsylvania대학의 Wharton School 창업프로그램은 적어도 4개 이상의 기업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Northwestern 대학의 Kellogg School은 매년 개최되는 사업계획서 경진대회를 통하여 그 승자에게 사업계획을 벤처캐피탈리스트나 다른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영대학은 창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있다. Kellogg School의 경우 1995년에 비해 1996년에는 수강생이 89%나 증가했다. Stanford 대학의 경영대학원은 학위취득후의 자신의 사업을 개시하는 비율이 1990년 입학생의 3%에서 94년 입학생의 경우 1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프로그램 중 몇 가지는 특정 그룹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들은 실직자들, 예비창업자들, 여자들, 이민들, 소수그룹들, 또는 어린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어린이 창업의 경우 St. Louis대학의 창업교육자로부터 제안한 것으로, 학생들이 20대가 될 때쯤에는 기본적 가치관, 목표와 동기부여가 이미 창업에 접하기도 전에 고정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 시절에 접하게 되는 “상업적 모델”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창업에 대한 열정은 이미 감소되었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창업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창업에 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개발한 “어린이에서 10대까지”라는 프로그램의 3가지 목표를 보면, 기업가적 추진자가 되어 미래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린이를 기르고, 스스로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미래 지도자들을 개발하며, 책임감과 자신감을 고양시키는데 두고 있다.

4. 한국의 창업교육 실태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1997년도에 중소기업청의 지정 창업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창업교육을 개설했던 28개 지정교육기관 중 16개 대학(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상대, 공주대, 광주대, 대전산업대, 동의대, 상지대, 서원대, 세종대, 영남대, 한국항공대, 호서대, 홍익대)과 11개의 비대학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은행, 부산상공회의소, 경영기술지도사회, 기술혁신협회, 경남산업컨설팅, 부산창업상담(주), 신보창업투자(주), 한국기업상담(주), 한스버지니스 컨설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교재, 교과목의 내용, 강의시간 및 강사 구성을 조사했다. 또 이 기관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실무를 담당했던 대학의 교수 및 실무자들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창업교육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목적, 내·외부강사 구성의 비율, 교재개발, 교육생의 모집방법, 교육생의 수, 교육비의 조달방법, 교육을 지속할 것 인지의 여부, 교육의 효과,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개선방안 등을 조사했다.

2) 결과분석

(1) 창업강좌의 교육시간

대학과 비대학기관의 창업강좌 교육시간에 대한 조사결과 대학의 경우 1개 대학만이 15주(120시간)를 교육하고 나머지 10개(63%)대학에서는 20~49시간을 교육했고, 비대학의 경우에도 6개(55%)기관이 20~49시간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몇몇 교육기관의 수강생 설문조사에서는 20~49시간 정도의 교육시간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수강생이 많았다. 또한 20시간 미만으로 교육한 경우 세대학은 모두 무료였으나, 비대학의 경우 1곳만 무료였고 나머지 3곳은 유료로 교육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창업강좌의 교육시간

기관 \ 시 간	대학(16)		비대학(11)	
	빈 도	%	빈 도	%
20시간 미만	3	19	4	36
20~49 시간	10	63	6	55
50~99 시간	2	13	1	9
100시간이상	1	6	0	-

(2) 창업교육의 교과목

창업교육의 교과목은 용어상의 차이점은 있으나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29개 과목으로 정리했다. 이들 과목을 각각 창업이론, 창업준비, 창업후 경영, 분야별 창업, 사례연구와 실습지도 등 5부분으로 분류하였다(〈표 4〉 참조).

〈표 4〉 창업교육의 교과목 분류

분 류		대학		비대학		계	
		빈도	%	빈도	%	빈도	%
I. 창업이론	창업가의 성격, 기업가정신	11	69	10	91	21	78
II. 창업준비	사업아이템 선정전략	9	56	8	73	17	63
	사업타당성 분석	15	94	11	100	26	96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5	94	11	100	26	96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및 육성정책	14	88	9	82	23	85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4	25	3	27	7	26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탈	12	75	3	27	15	56
	창업절차	14	88	9	82	23	85
	창업자금조달, 재무관리	15	94	10	91	25	93
	창업기업의 회계, 세무실무	14	88	10	91	24	89
	창업기업의 법률 인·허가 실무	7	44	7	64	14	52
	신용보증제도, 기술보증제도의 활용	3	19	2	18	5	19
	사업규모 결정요령	2	13	2	18	4	15
	공장(점포) 입지선정, 설계	9	56	5	45	14	52
	무역실무	5	31	2	18	7	26
III. 창업후 경영	21세기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전략	9	56	8	73	17	63
	기술개발지원, 생산관리	10	63	3	27	7	26
	벤처마케팅전략	3	19	4	36	7	26
	창업, 중소기업 마케팅	11	69	8	73	19	70
	인사관리	1	6	1	9	2	7
	인터넷 비즈니스 이론과 실제	4	25	3	27	7	26
	경영정보 네트워크 전략	6	38	5	45	11	41
	창업기업 경영전략	8	50	3	27	11	41
IV. 분야별 창업	유통업 창업	3	19	4	36	7	26
	소자본 창업	4	25	5	45	9	33
	벤처창업	7	44	8	73	15	56
	서비스업, 정보사업 창업	4	25	2	18	6	22
V. 사례연구 실습지도	모의 경영실습	2	13	4	36	6	22
	창업기업 성공, 실패사례	15	94	10	91	25	93

각각의 분류된 과목을 보면 29개 교과목 중 창업이론 지식에 1개 교과, 창업준비에 14개 교과, 창업후의 경영과정에 8개 교과, 분야별 창업에 4개 교과, 사례연구와 실습지도에 2개 교과가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창업교육은 창업 준비와 창업후의 경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창업이론이나 사례연구 및 실습지도는 한 두 과목만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업이론의 경우 창업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창업가의 특성, 자기평가, 성공적인 기업가로서의 성장과정들을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못했다.

(3) 창업교육 시작동기 및 목적

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알아보았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동참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42%로 가장 많았다(〈표 5〉 참조).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촉진 시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 39%로 나와 있다.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전문지식의 교육으로 개인의 창업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29%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기업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기업 등의 홍보 및 잠재고객 확보, 대학생들의 진로의 폭을 확대 예비창업자들의 자질이 발견 및 향상 등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들이 있었다.

〈표 5〉 창업교육의 시작동기 및 목적

창업교육 시작동기 및 목적	빈도	%
① 정부정책 및 사회요구에 부응	12	42
②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 촉진	11	39
③ 창업정보의 제공 및 전문지식 교육	8	29
④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도모	5	19
⑤ 기업, 대학홍보 및 수익사업	5	19
⑥ 대학생의 진로확대 및 창업자의 자질발견	4	14
⑦ 잠재고객 및 거래기반 확보	3	11
⑧ 창업마인드 향상 및 창업촉진	3	11
⑨ 대학의 신기술과 창업 사업과의 연계	2	7
⑩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의 이행	2	7

(4) 강사구성의 비

창업교육 전문강사가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강사 배정 시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창업교육 강의에 내부강사와 외부강사의 비율은 대학의 경우

비대학에 비해 내부강사의 채용비율이 높다(〈표 6〉 참조).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부강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창업교육이 실무교육위주로 되어 있어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비대학의 경우 외부강사 의존도는 더욱 높다. 이는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양성된 전문강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창업교육 전문 교육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출강하는 강사들의 경우 한사람이 여러 곳을 겹치기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6〉 내부강사와 외부강사의 비

내부 : 외부	대 학		비대학	
	빈도	%	빈도	%
0 : 100	1	6	1	8.3
10 : 90	2	13	6	50
20 : 80	7	44	1	8.3
30 : 70	2	13	3	25
50 : 50	4	25	1	8.3

(5) 교 재

교재의 자체개발과 강사의 준비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과 공기업, 민간기업 모두 강사의 원고를 받아 교재로 제작·배부하거나, 강사가 준비한 강의안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에게 원고청탁시 대부분의 경우에 강의 주제는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각 대학,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 창업교육 전문강사의 부족으로 창업강좌를 개설할 때마다 참여하는 강사의 원고를 받아 정리하여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창업교육을 위한 창업교육 전문교재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창업교육 교재개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교육생의 모집

교육생의 모집방법으로 대학의 경우 87%가 신문에 광고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포스터나 현수막으로 홍보하였다(〈표 7〉 참조). 이에 비해 비대학의 경우 100%가 1개 신문 또는 그 이상에 광고를 냈고 그중 50%가 신문과 광고방송, DM제작발송, 포스터제작 등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학이 대학에 비해 홍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 느끼며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고객의 확보와도 관계가 있어 홍보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업교육의 홍보를 위하여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교육비의 부담을 가져오게 되어 정작 교육자체에 쓰여질 예산에 부담을 주

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홍보방법,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청에서 단체 적인 홍보를 하여 개별 교육기관의 홍보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표 7〉 교육생의 모집방법

방 법	기 관	대 학(16)		공기업, 민간기업(12)	
		빈도	%	빈도	%
광고(포스터, 방송, 현수막, DM발송)		2	13		
신문(일간지, 지역신문)		13	87	12	100
신문 및 광고		1	6	6	50

(7) 수강생의 수(1회기준)

한 강좌당 1회 수강생이 몇 명 참석하는가를 알아 본 결과 대학에서는 50~100명이 수강 하는 경우가 50%였고, 50명 미만 또는 100명 이상인 경우가 각각 25%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대학의 경우 무료교육일 때와 재학생들의 수강여부에 따라 수강인원이 다소 유동적이었다. 이에 비해 비대학의 경우 수강생은 규모별로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육비를 유료로 했던 것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강좌당 수강생의 수

인 원	기 관	대 학(16)		공기업, 민간기업(12)	
		빈도	%	빈도	%
50명 미만		4	25	4	33.3
50~100명		8	50	4	33.3
100명 이상		4	25	4	33.3

(8) 교육비의 조달방법

교육비의 유료, 무료여부와 부족한 교육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를 알아 보았다. 지정창업교육 개설기관 28개중 21개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3개 대학 및 4개 비대학기관은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과 수강생들의 수업료로 개설되었다(〈표 9〉 참조). 대학은 무료가 6개, 유료가 10개였고, 이중 5개는 3만원 이하의 교육비를 책정하여 교육비에 의한 수강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비대학의 경우 무료가 1개 유료가 11개였으며 이중 6개는 10만원 이하의 수강료를 책정하고 무료강좌의 경우 수강생이 첫째시간에는 많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도 있었다. 비대학의 경우 교육비가 대학보다 유료로 개설된 경우가 많은 이유는 대학보다 홍보비의 지출과 외부강사 의존도가 높았던 것과

도 관련이 있다.

현재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무료강좌가 대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무료강좌는 교육생들의 열성이나 교육프로그램의 품질관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따라서 정부보조와 함께 일정부분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9〉 교육비의 유무

교육비	기 관	대 학(16)		공기업, 민간기업(12)	
		빈도	%	빈도	%
무 료		6	38	1	8
유 료		10	62	11	92

(9) 교육의 지속여부

창업교육을 지속할 것인 지의 유무에 대해 대학의 88%, 비대학의 92%가 지속할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10〉 참조). 지속하는 주 이유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수강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다. 지속하지 못하는 2개 대학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하나 대학내부의 사정으로 부득이 98년도 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학의 경우 1개는 주변에 늘어나는 무료교육으로 인하여 유료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 개설계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개설하겠다는 기관의 경우 1년에 2회 정도씩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지정창업교육기관의 신청을 매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창업교육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창업교육기관 지정절차를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다.

〈표 10〉 교육의 지속여부

지 속	기 관	대 학(16)		공기업, 민간기업(12)	
		빈도	%	빈도	%
유		14	89	11	92
무		2	11	1	8

(10) 창업교육의 효과

창업교육이 수강생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고있다고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54%)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창업교육이 수강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다음으로는 「창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및 실무의 이해」가 39%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준비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창업교육의 효과

창업교육의 효과	빈도	%
① 창업에 대한 자신감 및 금지부여	15	54
② 창업관련 이론 및 실무의 이해	11	39
③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직업전환의 사전점검	5	18
④ 현장경험, 답사를 통해 습득된 이론, 경험의 실현가능성 모색	5	18
⑤ 창업보육기관 입주 연계와 자금지원 및 상담혜택	3	11
⑥ 동우회 조직 및 계속적 정보교환	3	11
⑦ 기타	3	11

또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응 및 직업전환의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14%로 최근처럼 구조조정과정에서 필요성이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선배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경험을 듣거나 현장답사 등을 해 봄으로써 자신이 습득한 이론이나 경험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 「수료 후 실제 창업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혜택」을 받거나, 「함께 교육을 수료한 동료들 간에 동우회를 조직하여 계속적인 정보교환 등이 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II) 창업교육 실시기관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창업교육기관에서 교육담당자들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느꼈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수강생들과 창업업종의 다양성에 대처하는 능력의 부족했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창업교육이 아직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창업교육 정책과 현장간의 갭」이 있고, 교육자금 지원방식이 전시행 후지원 방식으로 되어있어 지원기관과 교육기관간에 견해차이에서 발생하는 애로점을 지적했으며(36%),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일회적이고 교육시간의 부족」으로 수강생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지적됐다(36%). 이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시간이 프로그램에 따라 유연성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밖에도 창업교육 전담자가 없어 홍보, 행정 등의 준비로 업무부담이 크다. 강사들에게 미리 강의주제를

정해주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지방의 경우 강사섭외의 어려움을 들었고,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구성 및 모의창업게임, 현장학습, 창업기술지원 시스템구축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표 12〉 창업교육기관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문제점 및 애로사항	빈도	%
① 수강생의 다양성 및 다양한 업종에 대비한 수용능력 부족	15	54
② 정책과 현장교육의 견해차에 따른 애로점 및 예산부족	10	36
③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의 단기성 및 일회성	10	36
④ 교육준비과정에서 홍보, 행정등 담당인력 부족	6	21
⑤ 강의내용의 중복 및 강사섭외의 애로	5	19
⑥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시스템 및 물적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4	14
⑦ 기타	3	11

(12) 개선방안

창업교육 현장 담당자들이 제안하는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창업교육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및 창업사례연구, 모의 창업게임, 현장학습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0%로 나타나 있다(〈표 13〉 참조). 또한 창업사례연구시 성공기업의 사례연구도 중요하지만 실패사례를 좀더 깊이 연구하여 미래의 창업가에게 실패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나라의 창업교육이 아직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정부의 지원과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강생들 자신이 창업에 따른 기업가 정신의 인식 및 평생직업을 택할 수 있는 탐색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 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창업교육 참여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업교육 관련기관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수강생들의 실제 창업여부 및 창업교육이 창업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하여 향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수 있어야하며, 정부에서는 「현실성 있는 창업정책, 창업교육기관의 선정, 설립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는 「창업교육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창업교육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후의 실태, 현황검토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13〉 개선 방안

개 선 방 안	빈도	%
① 세분화, 전문화, 체계화된 교육과정개발 및 이에 따른 지원	14	50
② 예비창업과 자신의 기업가정신 인식 및 평생직업 탐색의 기회	11	39
③ 관련교육기관은 사후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개발에 반영	10	36
④ 정부는 실현 가능한 창업지원정책을 마련	9	32
⑤ 정부는 창업교육기관의 선정, 설립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6	21
⑥ 교육실무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후 실태보고	5	18
⑦ 기 타	3	11

5. 결론

지난 수년간 창업교육을 개설하는 대학, 컨설팅회사, 공공기관들이 급증한데 비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육방법의 발전은 더딘 편이다. 이는 창업교육의 증가속도에 비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이 부족하며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의 층이 얇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창업교육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창업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킬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무료로 교육하는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수강생들이 덜 진지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인식할 우려가 있다. 무료강좌의 경우 초기의 등록자에 비해 후반에 탈락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창업교육에 관심을 두고있는 교수 및 연구자들이 세분화, 전문화 및 체계화된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창업교육 전문교과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정부분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특히 벤처기업 창업 붐에 따라 실무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창업의 실패확률을 높이게 되어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효과를 감소시키게 될 것

이다. 또한 무분별한 창업은 실패빈도를 높여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도 높다. 벤처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업기업가의 자질과 능력개발을 통한 창업의 성공가능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을 비롯한 산업대학, 전문대학, 실업계고등학교, 직업학교 및 관련기관 등에서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실무 및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수강생 및 창업업종의 다양성을 고려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강생들의 다양한 연령, 학력, 성별, 경력 및 동기 등과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여 교과과정을 세분화, 전문화 및 체계화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한 교육을 선택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 창업교육의 목적과 수강대상자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의 제조업중심 창업교육에서 소자본창업, SOHO창업, 여성창업, 서비스·유통업창업, 프랜차이즈창업 등 좀더 다양한 업종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과정 및 교수법에 따라 강의시간 배정을 달리하고 지속적인 교육운영이 필요하다. 강의식을 탈피하여 시청각교육, 토론, 현장학습, 실습 및 사례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교과과 내용에 따라 강의시간이 신축성 있게 배정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교과목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창업교과목은 창업준비작업에 치중되어 있다. 수강생들이 당장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향후 창업동기유발, 창업기업가의 자기평가, 성취동기, 창의성 개발 및 기업가정신 등 창업이론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창업준비작업과정에서는 사업기회를 확인하는 대안적인 방법, 기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법, 시제품의 제작 및 판매조직원 구축 등을 좀 더 다루어야하고, 창업후의 경영에서는 기업의 성장이론, 조직개발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함께 교육을 지원하는 적절한 물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창업교육의 전문강사의 양성을 지원하고 모의창업게임, 현장학습, 창업 및 기술 정보 지원 시스템, 창업보육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기관 및 정부는 교육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창업교육개설 기관 중 교육교재의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향후 창업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강생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조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창업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또 정부는 교육담당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부와 교육기관간의 견해차를 줄이고 대학, 교육담당기관 및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창업교육관련기관에서는 창업교육에 관련된 학술토론 및 정보 교류 모임을 개최

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학회 및 중소기업관련기관에서는 학술토론 및 정보 교류 모임을 마련하여 창업교육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창업교육 관련기관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창업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참고 문헌

- 박춘엽, “한국의 대학에서의 중소기업 창업교육 현황연구 : 강좌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15권 제2호, 1993, pp. 82-87.
- 박춘엽, “한국과 미국의 창업지원체계의 비교: 벤치마킹식 접근”, 『한국중소기업회지』, 제19권 제1호, 1997, pp. 270-272.
- 어윤배, “창업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이론적 고찰”, 『중소기업연구』, 제15권 제2호, 1993, pp. 229-233.
- 어윤배외4인, “기업가양성과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승실대중소기업논문집』, 제5권, 1994, pp. 77-79.
- 조병주, “창업교육의 교과내용 결정모형과 전공과목의 개발방향”, 『한국중소기업학회지』, 제18권 제2호, 1996, pp. 159-171.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실태 조사결과』, 중소기업청(조사 평가 담당관실), 1997.
- Gartner, W. B. & K. H. Vesper, “Executive Forum: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 Successes and Fail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1994, pp.179-187.
- Kerr, J. R.,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Institute Curriculum: Rationale, Development and Results”, *Proceedings of National Conference of the Small Business Institute Directors'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1988, pp. 27-30.
- Low, M. B. & I. A. MacMillan, “Entrepreneurship: Pas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Management*, 14 (2), 1988, pp. 139-161.
- Scott, M. G., “Aspects of the Long Term Supply of Entrepreneurs: The U. K. Experience of Encouraging Graduate Enterprise”, In B. A. Kirchoff, W. A. Long, W. Ed McMullan, K. H. Vesper, 1988.
- Sexton, D. L. and N. B. Bowman, “Validation of an Innovative Teaching Approach for Entrepreneurship Cours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3): 11-18, 1988.
- Solomon, G. T. and L. W. Fernald Jr., “Trends in Small Business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1.
- Solomon, G. T., L. W. Fernald Jr. and L. M. Weaver., “Trends in Small Business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 An Update”,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Proceedings, 38th World Conference, Las Vegas, Nevada, U. S. A.*, 1993, pp. 230-242.
- Vesper, K. H. “Entrepreneurial Academics. How can we tell when the field is getting somewher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5 (2), pp.1-7, 1987

- Vesper, K. H. "Research on Education for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NJ:Prentice-Hall, 1982, pp.321-351
- Wortman, M. S. Jr., "Entrepreneurship Research and Its Integration into the Curriculum", *Paper presented at the 1989 Annual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Washington, D. C., 1989.